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11. 16. ~ 11. 22.

전남농업정보

60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백다다기 · 애호박 11~12월 정식 의향

농작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채류 · 과일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지리적표시 농식품, 중국으로 진출한다

'15.1~10월, 농식품 수출 51.2억불,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

한중 FTA 농수산업 대응 방향 토론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올 전남산 골드키위 더욱 맛있게 수확 마무리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충 방제 쉬워진다.

2015 새기술보급 원예·특작 종합평가회 개최

정책 동향

2015 농정업무 종합평가서 순천시 대상

해외 농업정보

엘니뇨, 흑해 지역 가뭄 외 곡물 시장 피해 전망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8

- 기압골의 영향으로 23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6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전반에는 높겠으나,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11

- 백다다기오이,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애호박, 11~12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할 전망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농촌경제연구원) 12

▶ 과채류 : 백다다기오이 · 애호박

- 백다다기오이 :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100개에 34,000~37,000원으로 전망
- 애호박 :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12,000~15,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

▶ 과 일 : 사과 · 배

- 사과 : 전년보다 낮은 21,000~24,000원/10kg으로 전망
- 배 :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2,00~34,000원/15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13

- ▶ 여수시, 강소농 팜파티로 건강한 먹을거리 선보여
- ▶ 광양시 형제의병장마을, 배추김치 담그기 체험
- ▶ 광양시, 통장 대상 삼시세끼 광양쌀 먹기 홍보
- ▶ 담양군, 탐과채 '딸기' 생산 핵심기술 공유
- ▶ 보성군, 녹차미인 별교딸기 「탐과채 프로젝트」 추진
- ▶ '완도 자연그대로' 고품질 유자 검증
- ▶ 완도방울토마토 이제부터 '완도 스마토'로 불러주세요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20

- ▶ 지리적표시 농식품, 중국으로 진출한다
- ▶ '15.1~10월, 농식품 수출 51.2억불,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
- ▶ 한중 FTA 농수산업 대응 방향 토론
- ▶ 이낙연 지사, “중국 큰 변화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확대 기회”

❀ 농업기술 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27

- ▶ 올 전남산 골드키위 더욱 맛있게 수확 마무리
- ▶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충 방제 쉬워진다.
- ▶ 2015 새기술보급 원예·특작 종합평가회 개최
- ▶ 차나무 동백가는나방 늦가을까지 지속 발생
- ▶ 전남농기원, 맥주보리 생산비 절감기술 시연회 개최
- ▶ 당당하고 활기찬 꽃노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성과 발표회 개최
- ▶ 더위에 강한 배추·무 새 품종 평가받아

❁ 정책 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35

- ▶ 2015 농정업무 종합평가서 순천시 대상
- ▶ 면세유 가격정보를 오픈넷을 통해 공개
- ▶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미래농업을 이끈다!
- ▶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

- ▶ 엘니뇨, 흑해 지역 가뭄 외 곡물 시장 피해 전망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1. 16.(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숏커버링으로 인한 상승세는 한계를 보이고 박스권 등락으로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풍작 및 수출 수요 약세로 인한 압박으로 하락 마감함. 숏커버링 이후 매도세를 보인 거래가 하락의 반증임. 미국 중서부와 평원 지역 다음주 강우가 예보되어 있어 겨울 밀 작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에 수출 수요 약세가 겹치며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함. 현재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옥수수 생산을 감축 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수요가 기대되어 재고량 불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 관계자는 전함.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프로핏테이킹 차질로 하락 마감함. 기술적 매수세 및 계약이 감소한 것의 영향도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됨. 풍작으로 인한 공급량 과잉과 더불어 2016년 파종 또한 많아 가격 하락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나 기대보다 나은 수출수요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제46회 4-H 중앙경진대회

- 일 시 : 2015. 11. 16.(월) ~ 2015. 11. 18.(수)
- 장 소 : 전주 농촌진흥청 일원
- 주 제 : “젊은 4-H 미래농업을 약속하다”
- 계획인원 : 800여명(청년4-H회원 및 학생4-H회원)
- 주요내용
 - 우리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연
 - 으뜸 농특산물 경진
 -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와 곤충 요리 경연 등 참여 활동과 미래 농기계 전시
 - 도시민과 함께하는 4-H 한마음 축제

▶ 대한민국 농업의 변화! 강소농 - 2015 강소농 대전

- 일 시 : 2015. 11. 18.(수) 13:30
- 장 소 : 서울 코엑스 전시관(A홀)
- 주요내용
 - 강소농 성과보고회
 - 시군 우수농산물 전시
 - 바이어 초청 농산물 유통의 날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1. 1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6)	1주일전 (11/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신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7,000	37,200	38,120	41,800	42,158	↓ 11.5	↓ 12.2
	콩(백태)	35kg	146,400	144,400	137,000	142,250	195,933	↑ 2.9	↓ 25.3
	고구마(밤)	10kg	21,600	21,800	22,200	20,200	22,227	↑ 6.9	↓ 2.8
	감자(수미)	20kg	25,600	25,600	24,800	20,300	27,647	↑ 26.1	↓ 7.4
채 소 류	가을배추	1kg	400	430	-	428	590	↓ 6.5	↓ 32.2
	양배추	10kg	3,900	4,000	5,000	4,400	6,355	↓ 11.4	↓ 38.6
	시금치	4kg	9,400	9,600	9,000	8,600	8,307	↑ 9.3	↑ 13.2
	청상추	4kg	13,600	14,800	15,400	16,500	11,833	↓ 17.6	↑ 14.9
	수박	1개	7,400	7,400	8,880	7,200	9,240	↑ 2.8	↓ 19.9
	오이(다다기)	10kg	22,333	22,667	16,933	24,889	23,795	↓ 10.3	↓ 6.1
	애호박	8kg	20,400	16,400	14,680	22,750	23,317	↓ 10.3	↓ 12.5
	토마토	10kg	17,000	16,800	21,680	21,700	27,220	↓ 21.7	↓ 37.5
	가을무	20kg	8,800	9,000	-	9,170	11,160	↓ 4.0	↓ 21.1
	당근	20kg	27,000	28,000	31,000	19,250	34,657	↑ 40.3	↓ 22.1
	건고추(화건)	60kg	806,000	816,000	818,000	860,000	920,533	↓ 6.3	↓ 12.4
	풋고추	10kg	32,000	29,000	19,920	66,850	48,253	↓ 52.1	↓ 33.7
	마늘(난지)	10kg	56,000	55,000	53,000	33,800	36,407	↑ 65.7	↑ 53.8
	양파	20kg	32,400	31,400	28,200	10,400	18,107	↑ 211.5	↑ 78.9
	대파	1kg	1,810	1,690	1,710	1,090	1,657	↑ 66.1	↑ 9.2
	파프리카	5kg	13,000	13,800	13,640	23,350	26,327	↓ 44.3	↓ 50.6
	방울토마토	5kg	10,200	10,200	11,600	10,850	14,887	↓ 6.0	↓ 31.5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6,000	340,00		36,400	43,591	↓ 1.1	↓ 17.4
	배(신고)	15kg	42,000	40,200	39,200	29,800	39,400	↑ 40.9	↑ 6.6
	감귤	10kg	17,800	17,600	-	16,550	16,664	↑ 7.6	↑ 6.8
	단감	10kg	16,600	18,200	22,600	15,200	21,831	↑ 9.2	↓ 24.0

부류	품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단위	당일 (11/16)	1주일전 (11/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대비	평년대비
특용작물	참깨(백색)	30kg	534,000	530,000	530,000	510,000	546,200	↑ 4.7	↓ 2.2
	땅콩	30kg	274,400	274,400	274,800	239,000	243,467	↑ 14.8	↑ 12.7
	느타리버섯	2kg	11,400	12,000	10,600	11,500	12,000	↓ 0.9	↓ 5.0
	새송이버섯	2kg	8,400	8,400	8,160	7,000	8,113	↑ 20.0	↑ 3.5
축산물 (소매가)	한우등심(100g)	100g	7,760	7,812	7,743	6,789	6,499	↑ 14.3	↑ 19.4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11	1,820	1,942	1,856	1,637	↑ 3.0	↑ 16.7
	닭고기	1kg	5,167	5,251	5,232	6,013	5,852	↓ 14.1	↓ 11.7
	계란(특란)	30개	5,324	5,659	5,447	6,027	5,631	↓ 11.7	↓ 5.5
	우유	1리터	2,550	2,550	2,545	2,546	2,386	↑ 0.2	↑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1. 16. 기준)

구분		금주가격 (A)	전주가격 (B)	전년 동기 (C)	가격 비교		등락율(%)	
					A-B	A-C	전주대비	전년대비
큰 소 (600Kg)	암	5,900 천원	5,449 천원	4,520 천원	451 천원	1,380 천원	↑ 8.3	↑ 30.5
	거세	7,004 "	6,710 "	5,323 "	294 "	1,681 "	↑ 4.4	↑ 31.6
송아지 (6~7월)	암	2,599 "	2,403 "	1,851 "	196 "	748 "	↑ 8.2	↑ 40.4
	수	3,310 "	2,878 "	2,454 "	432 "	856 "	↑ 15.0	↑ 34.9
육우(600Kg)		3,433 "	3,382 "	3,302 "	51 "	131 "	↑ 1.5	↑ 4.0
젖소수송아지(7일령)		296 "	307 "	37 "	-11 "	259 "	↓ 3.6	↑ 700.0
돼지(110kg)		400 "	363 "	438 "	37 "	-38 "	↑ 10.2	↓ 8.7
육계(원/kg)		1,321 원	1,369 원	1,790 원	-48 원	-469 원	↓ 3.5	↓ 26.2
계란(원/특란10개)		1,113 "	1,124 "	1,432 "	-11 "	-319 "	↓ 1.0	↓ 22.3
오리(원/kg)		2,166 "	2,166 "	2,166 "	0 "	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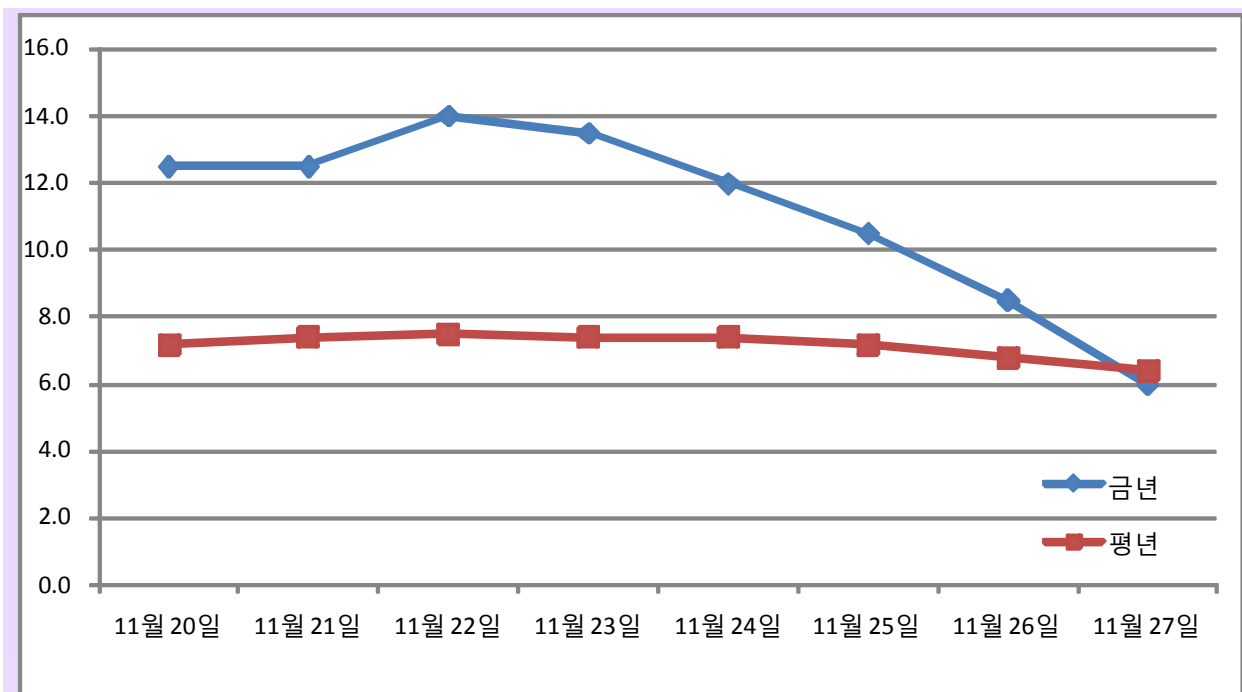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1.9	7.3	4.7	15.0	12.9	2.1	8.9	2.6	6.3	1.4
11월 20일(금)	12.5	7.2	5.3	16.0	12.8	3.2	9.0	2.5	6.5	1.5
11월 21일(토)	12.5	7.4	5.1	18.0	13.2	4.8	7.0	2.5	4.5	1.4
11월 22일(일)	14.0	7.5	6.5	18.0	13.3	4.7	10.0	2.6	7.4	1.2
11월 23일(월)	13.5	7.4	6.1	15.0	13.3	1.7	12.0	2.5	9.5	1.3
11월 24일(화)	12.0	7.4	4.6	14.0	13.2	0.8	10.0	2.7	7.3	1.3
11월 25일(수)	10.5	7.2	3.3	13.0	12.7	0.3	8.0	2.7	5.3	1.6
11월 26일(목)	8.5	6.8	1.7	11.0	12.1	-1.1	6.0	2.4	3.6	1.7
11월 27일(금)	6.0	6.4	-0.4	8.0	11.6	-3.6	4.0	2.2	1.8	2.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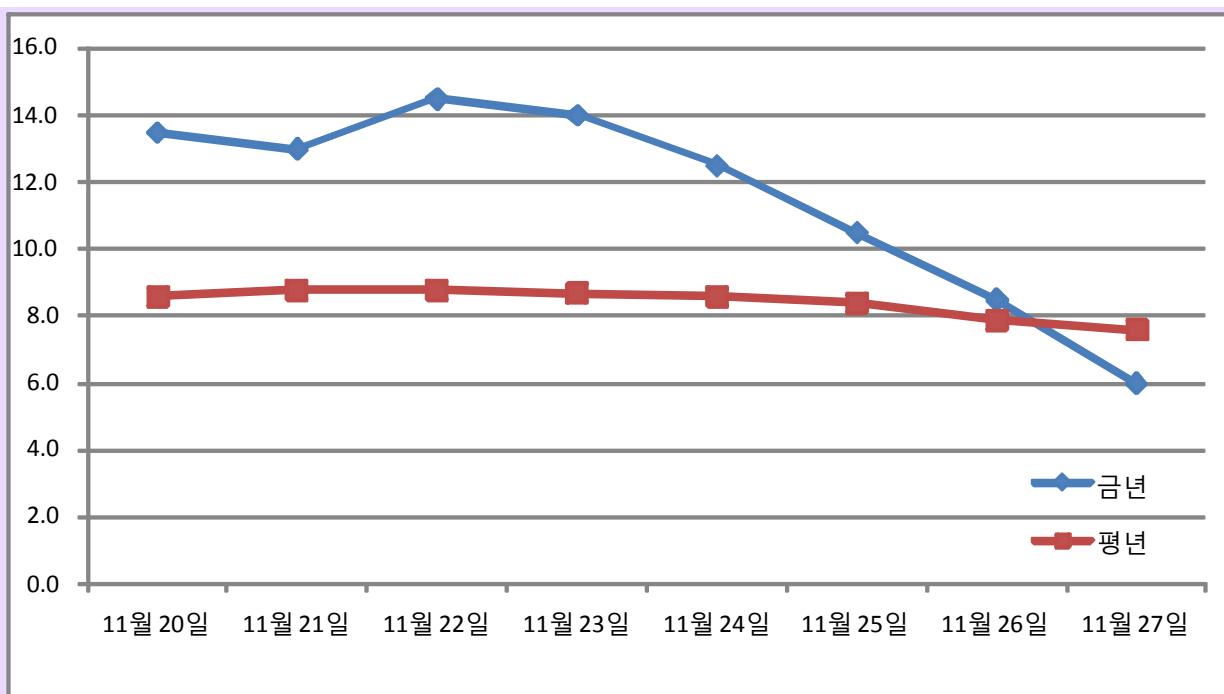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	12.4	8.5	3.8	14.6	13.7	0.8	10.1	4.5	5.7	1.5
11월 20일(금)	13.5	8.6	4.9	16.0	13.8	2.2	11.0	4.5	6.5	1.4
11월 21일(토)	13.0	8.8	4.2	17.0	14.0	3.0	9.0	4.6	4.4	1.5
11월 22일(일)	14.5	8.8	5.7	18.0	14.2	3.8	11.0	4.5	6.5	1.2
11월 23일(월)	14.0	8.7	5.3	15.0	14.0	1.0	13.0	4.5	8.5	1.4
11월 24일(화)	12.5	8.6	3.9	14.0	13.9	0.1	11.0	4.6	6.4	1.5
11월 25일(수)	10.5	8.4	2.1	12.0	13.4	-1.4	9.0	4.5	4.5	1.7
11월 26일(목)	8.5	7.9	0.6	10.0	12.9	-2.9	7.0	4.1	2.9	1.7
11월 27일(금)	6.0	7.6	-1.6	7.0	12.4	-5.4	5.0	3.9	1.1	2.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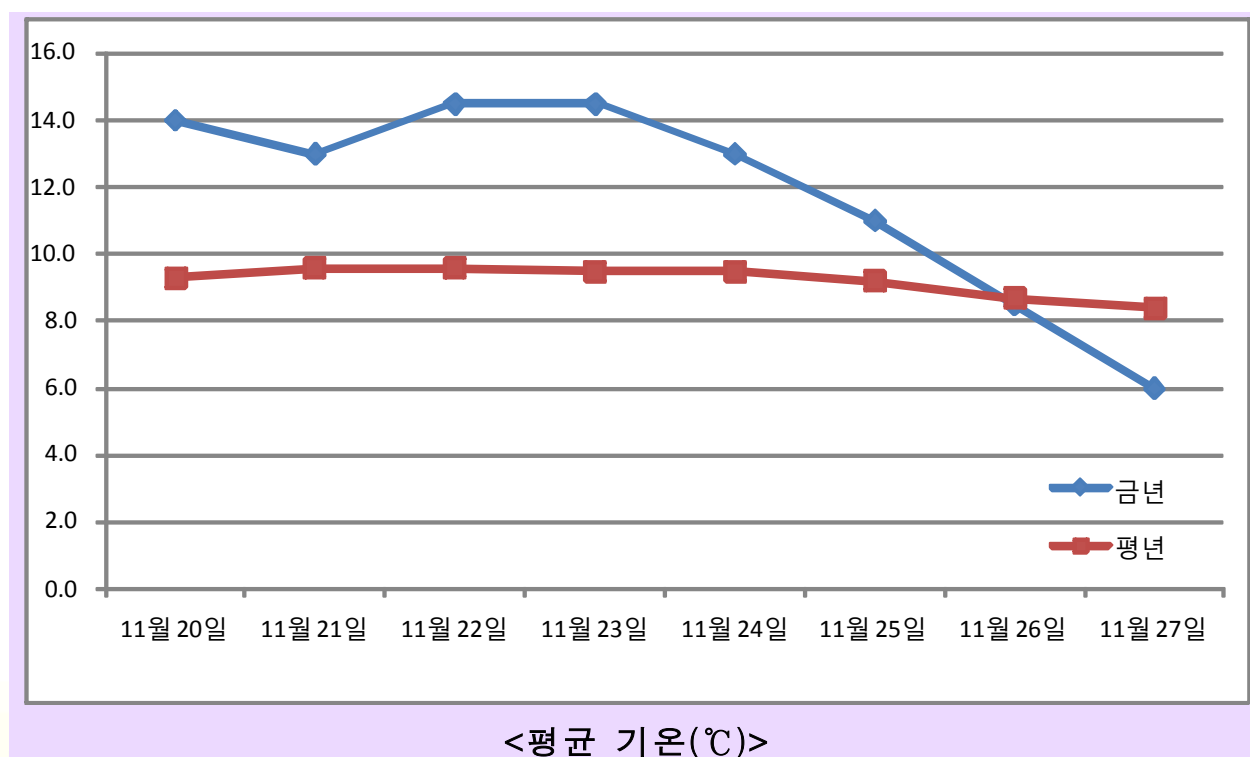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	12.6	9.3	3.3	14.3	13.2	1.1	11.0	6.0	5.0	1.6
11월 20일(금)	14.0	9.3	4.7	16.0	13.3	2.7	12.0	5.9	6.1	1.7
11월 21일(토)	13.0	9.6	3.4	16.0	13.5	2.5	10.0	6.1	3.9	1.5
11월 22일(일)	14.5	9.6	4.9	17.0	13.6	3.4	12.0	6.1	5.9	1.0
11월 23일(월)	14.5	9.5	5.0	15.0	13.4	1.6	14.0	6.1	7.9	1.7
11월 24일(화)	13.0	9.5	3.5	14.0	13.3	0.7	12.0	6.2	5.8	1.7
11월 25일(수)	11.0	9.2	1.8	12.0	12.9	-0.9	10.0	5.9	4.1	1.6
11월 26일(목)	8.5	8.7	-0.2	10.0	12.5	-2.5	7.0	5.4	1.6	1.6
11월 27일(금)	6.0	8.4	-2.4	7.0	12.1	-5.1	5.0	5.1	-0.1	2.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재배 동향

백다다기오이 · 애호박 재배 동향

□ 백다다기오이, 11~12월 정식면적 변화 크지 않을 전망

- 11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가을작형 출하 연장으로 11월 정식이 12월로 늦춰지겠으나, 충남 부여 등 충청지역과 영남지역에서의 정식면적 변화가 적어 전체적인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애호박, 11~12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할 전망

- 11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경남 진주에서 9월로 정식을 앞당겼으나, 경남 고성, 경북 안동에서는 정식면적 변화가 적을 것으로 조사됨
- 12월 정식면적은 육묘 이상으로 재정식 비중이 높았던 전남 광양에서 9월로 정식을 앞당겼으나, 영남지역에서 변화가 없어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할 전망
- 내년 1월에도 주 정식지인 충북 청주, 충남 부여의 정식면적 변화가 크지 않아 금년 1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채류 : 백다다기오이 · 애호박

○ (백다다기오이)

- 11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3만 8,600원)보다 낮은 상품 100개에 3만 4천~3만 7천원으로 전망

○ (애호박)

- 11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1만 8천원)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1만 2천~1만 5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

과 일 : 사과 · 배

○ (사과)

- 11월 후지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9천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1천~2만4천원으로 전망

○ (배)

- 11월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만 9천원)보다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2천~3만 4천원으로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강소농 팜파티로 건강한 먹을거리 선보여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9일 여천동 반월망고 농장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팜파티 행사를 마련해 도농교류의 장을 펼치고 고객사랑에 보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이번 팜파티에는 강소농 자율모임체인 “로컬푸드와 아로니아” 소속 39농가가 주최하여 도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땀 흘려 가꾼 농산물로 준비한 시골밥상과 우수 농산물을 선보여 도시민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신뢰감을 심어 주었다.
- ‘팜파티’는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장주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 공연, 체험, 농산물 정보 제공 및 판매 등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 시에서는 오는 14일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소득다각화와 6차산업” 주최로 또 한 번의 팜파티를 열 계획이다. 소라면 방풍농장(여순로 284)에서 열릴 팜파티는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공연과 방풍케이크 만들기, 줌바댄스 배우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더해 더욱 알찬 먹을거리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팜파티를 자주 개최해 농가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도모하고 소비자들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도농상생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형제의병장마을, 배추김치 담그기 체험

- 11월 중순~12월 중순, 1인당 10,000원 -

- 광양시 형제의병장마을(위원장 김종수)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마을 내 반찬사업장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체험 적정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이며, 체험비용은 배추는 1인당 10,000원,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 오용표 사무장은 마을에서 김치 양념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체험 5일전까지 예약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2011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형제의병장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큰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강희보(형), 강희열(제) 장군이 태어난 마을로, 마을 이름 역시 역사에서 유래 됐다.
- 마을의 주요 농특산물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복분자 등이며, 감자, 단감, 고구마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확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체험을 희망하는 분은 061-763-8277(마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광양시

■ 광양시, 통장 대상 삼시세끼 광양쌀 먹기 홍보

- 광양쌀 사주가아침밥 먹가분식 줄이기 동참 당부, 광양쌀 샘플도 배부 -

- 광양시는 9일부터 11일까지 지역의 통장 회의에 직접 방문해 광양쌀 사주기 운동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 「2015년산 광양쌀 구매행태(패턴)의 개선과 쌀 더 먹기 운동전개 판촉활동」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금년 쌀농사의 대풍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소비 촉진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기간 동안 시는 광영동, 금호동, 중마동의 통장 회의에 방문하여 광양쌀 사주기 운동과 아침밥 먹기, 분식 줄이기를 통한 쌀 더 먹기 운동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통장들에게 당부했다.
- 또, 광양쌀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썬샤인광양쌀을 500g씩 샘플로 제작해 통장들에게 배부했다.
- 김병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쌀을 구입할 때 지역 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삼시세끼를 지역 쌀로 챙겨 먹는 습관이 지역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썬샤인광양쌀은 백운산의 맑은 물과 기름진 광양읍 세풍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로 특히 미질이 좋고 밥맛이 우수한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탐과채 ‘딸기’ 생산 핵심기술 공유

- 17일 담양에서 딸기 탐과채 현장평가회 개최, 기술 공유 및 현장견학 등 -
- 담양군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 최고 품질 탐과채 딸기 생산 기술 시범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오는 17일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현장평가회는 전국 탐과채 딸기 시범단지 농업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탐과채 생산 핵심기술과 주요성과에 대한 정보 교류, 현장견학으로 진행된다.
- 특히, 딸기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수경재배, 신품종 육성,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기술 활용 딸기 증식포 등을 견학해 본격적인 딸기재배에 따른 현장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는다.

- 또한, 담양 외에도 당진과 남원, 보성, 장흥, 하동 등 6개 시군 담당자로 부터 각 시범단지에서 추진한 탐과채 생산 핵심기술과 주요 성과 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요 핵심기술로 이어짓기 장해 예방과 품질 균일화, 수정 벌을 이용한 안전한 열매 달림, 시설 환경 개선, 약제 안전사용과 적기 수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탐과채 딸기 시범사업을 통한 단지는 인근 농가대비 평균 수량은 10%, 소득은 22%가 향상된데 이어 가격은 19%가 높았으며, 올해 추진하는 탐과채 딸기 시범사업은 전국 6개 단지 150여 농가로 약 60ha에서 재배되고 있다.
-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탐과채 프로젝트가 농업 현장의 성공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최고품질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담양에서 개발한 ‘죽향’ 품종의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담양은 딸기 10대 주산지로 ‘설향’과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죽향’을 재배하고 있으며, 올 봄 딸기 가격이 하락하는 2월 이후부터 본격 출하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출처 : 담양군

■ 보성군, 녹차미인 별교딸기 「탐과채 프로젝트」 추진

- 보성군 별교읍 척령 딸기영농조합법인에서는 농촌진흥청의 ‘탐과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총 2억원 (국비 50%, 군비50%)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탐과채 프로젝트’ 사업은 과채의 크기, 당도, 색도, 안정성 등 고품질

기준을 적용,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보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 지금까지 벌교 척령딸기영농조합법인에서는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탐과채 재배단지 홍보를 위한 홍보탑, 탄소동화작용 촉진 및 잿빛곰팡이병 발생 억제를 위한 탄산가스열풍기, 재배 환경 계측을 위한 ph·ec 측정기, 저온기 수정률 향상을 위한 수정벌 투입과 같은 품질향상 기자재를 지원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보성군은 ‘탐과채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2014~2015년 생산량은 4,270kg/10a로 전년에 비해 16% 증수되었으며, 조수입은 27,100천원/10a로 11%가 증가되었다.
- 또한 올해는 작년보다 작황이 좋아 생산량과 조수입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며, 탐과채 프로젝트는 올해로 끝나지만 고품질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차미인 벌교딸기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보성군은 벌교읍, 조성면을 중심으로 60ha에서 2,460톤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어 중요한 농가 소득작목으로 총 134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완도 자연그대로’ 고품질 유자 검증

- 완도군, 바이오 기능수 활용 유자 생육조사 평가회 개최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을 위해 바이오 기능수 활용 유자 생육조사 현장평가회를 지난13일 고금면 청학리에서 개최했다.
- 바이오 기능수란 동식물 세포생명 활성작용 촉매 역할로 면역력을 높이는

활성수이다.

- 이번 생육조사에서는 무농약인증(유기전환)포장을 일반수와 기능수를 구분해 7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생육조사(착과량, 산도, 당도, pH, 중량, 병해충, 예상수확량 등)를 실시했다.
- 생육조사 결과 여름을 지난 후 초기 과실이 큰 유자가 후기에 고품질 유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 해 여름철 비배관리가 중요함을 입증했다.
- 바이오 기능수를 활용한 포장과 일반수 포장 조사결과 토양환경, 과실의 당도·산도는 비슷하게 나왔다.
- 바이오 기능수를 활용한 유자가 일반수 유자에 비해 평균횡경이 약 0.2cm 크고, 과실 중량은 15g더 많이 나갔으며 착과량은 22개 더 많아 최종 예상수확량은 약 280kg/10a 정도 더 증수 된 것으로 조사 됐다.
- 또한 병해충 예찰결과 유자의 상품성을 하락시키는 응애류는 3배, 흑점병은 1.2배 일반수가 많이 발병했고, 흡즙 해충류는 바이오기능수가 1.5배 더 나왔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지과수 재배는 외부 기상여건의 변수에 의해 생육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2016년에도 동일포장에 생육조사 효과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바이오기능수 활용가치를 높여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완도군

완도방울토마토 이제부터 ‘완도 스마토’로 불러주세요

- 브랜드 상표 디자인개발, 해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제시 눈길 -

-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스마일방울토마토가 ‘완도스마토’라는 상표를 달고

소비시장에 본격 나선다.

- 12일 군에 따르면 전국적 상품가치가 높은 완도스마일방울토마토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완도스마토’브랜드상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관계공무원, 방울토마토재배작목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스마토 브랜드 개발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 완도스마토는 군외면 일원에서 23농가가 연간 426톤을 생산하여 약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스마토는 완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농약, 바이오기능수 공급 등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으로 생산하고 있다.
- 또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과육이 탄탄해 다른 지역산 보다 약 2-3일간의 저장성이 길어 신선도 유지가 매우 탁월하다.
- 군은 완도스마토 브랜드 상표 개발을 계기로 소비자 심리를 충족시키는 스마토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감성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풍이 농업에 미치는 좋은 영향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강한 바닷바람은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쳐 불필요한 성장을 억제하고 광합성 작용을 둔화시키는 반면 당도와 경도를 높이기 때문에 완도산 채소와 과일이 상품성이 월등히 높다.”라고 말했다.
- 완도스마토 디자인상표 개발 추진사업은 이달말까지 상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확정해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며 등록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 출처 : 완도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지리적표시 농식품, 중국으로 진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오늘부터 13.(금)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상해식품박람회(FHC China 2015)*에 지리적표시 농식품 생산 업체(단체)에 대해 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 올해 19회째 개최되며 중국 내 식품, 와인, 음료 분야 가장 규모 있는 박람회('14년 개최 현황: 66개국 2,400개 업체 참가, 34,761명 참관, 54,447명 방문)
- 지리적표시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2015. 10월 현재 148개 농림축산물 등록)
- 농식품부는 중국은 약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 최근 한국산 우수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 우리나라 각 지역의 우수 농식품인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상해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 상해식품박람회 참여는 공모를 통해 상품성, 진출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6개 지리적표시품 생산자를 선정했다.
- 참여업체(단체)는 농업회사법인(주)보향다원(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호 보성녹차), 명품하동녹차사업단(제2호 하동녹차), 참살이영농조합법인(제14호 고흥유자),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제26호 진도홍주),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제42호 해남고구마),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제94호 고흥석류)이며, 각 업체들은 녹차, 녹차라이스칩, 유자음료, 반시고구마, 석류즙 등 수출에 용이한 가공식품을 주 참가품목으로 하여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시식행사를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다.

- 농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은 “한·중 FTA 등 시장 변화에 따른 국내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상해식품박람회 지리적표시 농식품 참가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고흥유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업체가 세계 농식품 상품트렌드를 파악하고 중국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소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15.1~10월, 농식품 수출 51.2억불,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

- 주요 수출 증가국 현황 -

- (중국) 경기 둔화 양상(9월 PMI지수 : 47.2 → 10월 : 48.3)*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당월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 (9월은 △6.9% 감소)
- (다육식물) 최근 중국의 20~4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육식물 재배 과정이나 독창적으로 길러낸 다육식물 사진을 SNS 상에 공유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중국 내 다육식물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 특히, 다육식물의 전자파 차단 기능이 부각되면서 사무실 컴퓨터 옆에 두는 작은 화분 형태나 휴대폰에 달 수 있는 고리 형태의 다육식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 (라면) 중국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짜장라면김치라면 등이 경쟁

관계인 대만 라면의 기름지고 짭맛과 차별화되면서 라면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국내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소개된 짜장라면 레시피가 중국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한국 라면의 인기를 반영하듯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편의점 (7-Eleven, 하오린취 등)이 약 900여 곳으로 전년('14년 100여개소)에 비해 대폭 늘었고, 중국 전역의 중대형 소매점의 약 10%에 해당하는 2,200여 곳에서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등 유통 채널도 확대되고 있다.

□ (미국) 김치라면 등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9월에 비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폭이 확대(9월 : 11.4% ↑ → 10월 : 15.6 ↑)

- (라면) 미국에서 라면 요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산 라면도 덩달아 수출이 늘고 있다.
- 최근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으로 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7월말 현재 미국 전역에서 450여개의 라면 전문점이 성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까지는 일본 라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한국 라면도 매운 라면, 짜장라면 등 다양한 맛으로 현지인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9월 말부터 정식 수출을 시작한 프리미엄 짜장 라면의 경우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바이어들의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면서 앞으로 한국 라면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김치) 냄새가 덜 나는 김치나 고춧가루와 염분이 적은 김치 등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한인마켓 외에도 Trader Joe's나 Costco 등 현지 주요 식품 마켓으로 김치 유통망이 확대되고 있다.

- 주요 수출 감소국 현황 -

- (일본) 8월말 1,000원대까지 상승했던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9월말 : 996.8원 → 10월 말 : 944.1, △5.3%)하면서 10월 對일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0% 감소한 98,438천불 기록
- (주류) 일본의 전체적인 주류 소비규모가 감소한데다, 주류 분야까지 건강을 중시하는 성향이 확산되고 있어, 국산 제3맥주소주 등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일본의 주요 주류 브랜드들이 앞 다퉈 '당질 제로' 소주나 통풍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린체' 성분을 제외한 맥주 등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국내 주류 업체도 기능성을 가미한 상품군 개발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파프리카) 지난 6월 파프리카의 건강미용 기능성에 대한 방송 보도 이후 일본에서 파프리카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 국산 파프리카의 경우 본격 출하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 (토마토) 일본에서 미국산 토마토의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한국산 토마토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토마토 수출이 증가하였다.
- 미국의 토마토 주산지(전체 생산량의 1/3)인 캘리포니아의 가뭄 장기화에 따른 작황부진과 함께, 최근 국산 대과 토마토의 내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전년 동기대비 △25.4%, 11.12기준)한 것이 국산 토마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엔저와 수출 단가 하락('14 : 2.9불/kg → '15 : 2.6)의 영향으로 토마토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했으나, 수출액은 3.3%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 (홍콩) 엔저의 영향으로 홍콩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 확대(9월 : △4% → 10월 : △4.5%)

- (배) 9월 이후 엔화가 다시 약세 기조로 전환하면서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이 좋은 일본산 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 한국산 배의 수입 규모가 감소하였다.
- (유자차) 홍콩 내 가장 큰 유통체인인 '웰컴'과 '파킨샵' 등이 국내 유자차 생산업체로부터 유자차를 직접 구매함에 따라 유자차 수입 업체들이 한국산 유자차 취급을 줄여 유자차 수출이 감소(전년 대비 : 10월 당월 △27.8%, 10월 누계 △10.7%)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중 FTA 농수산업 대응 방향 토론

-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11일 목포대서 포럼 -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1일 목포대학교에서 전남 서부권 소재 중소기업, 학계, 유관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전남 농수산업 대응 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지역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모색, FTA활용센터를 활용한 기업체 활용 사례 공유 등을 통한 한중 FTA 대응 및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고경석 전라남도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내 전남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활용 및 지원시책 소개, 조창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사의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전남 농수산업 대응 방향' 주제발표, 양기동 완도물산 관세사의 지역 중소기업 FTA 활용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또 박석호 목포대 교수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등 5명의 패널이 참석해 전라남도 농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 김범수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은 “경제,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등 산업 분야별로 FTA 대응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체는 누구나‘전남 FTA 활용지원센터(061-288-3831)’를 통해 맞춤형 자문과 전문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순천대학교에서 전남 동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대응 및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이낙연 지사, “중국 큰 변화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확대 기회”

- 1가구 2자녀 정책, 쌀, 삼계탕, 김치 개방 등 -
- 전남 선진 농수산물인 조직화, 칭다오 aT물류센터 등 활용 -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9일 “최근 중국의 큰 변화를 전남 농수산물 또는 가공 농수산품의 중국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실국장 토론회와 선진농업인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남 내부에서는 선진농업인 조직과 선진수산물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중국에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칭다오 유통센터와 전남의 중국내 판매망 등을 충분히 활용해 이같은 변화에 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이 지사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며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중국정부 스스로 6%대로 낮춘 것 △수십년 유지했던 1가구 1자녀 원칙을 포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채택한 것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의 회담에서 한국산 쌀, 삼계탕,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 것을 예시했다.

- 이 지사는 “이 세 가지 변화는 한국 공산품의 대중국 수출은 위축될 수 있지만, 농수산물 또는 가공 농수산품의 중국수출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1가구 2자녀 정책의 채택으로 중국에서 해마다 200만 명의 신생아가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 신생아 시장의 확대를 주목하자고 제안했다.
- 이 지사는 △중국은 경작지 면적에서 미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지만, 국민 1인당 경작지 면적은 세계 126위로 식량부족 국가이며 △일부 작목은 저가수출하지만 쌀, 밀, 옥수수, 콩 같은 주요 품목은 엄청난 분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다 △중국 3대 주곡인 쌀, 밀, 옥수수의 중국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각각 151.8%, 156.6%, 165.3%로 비싸다고 지적, 전남산 농수산물과 가공 농수산품의 중국수출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이날 전남도는 선도농업인 130명을 선정해 △식량작물 △시설원에 △축산 △임업 △가공유통 등 5개 분야로 조직화,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
-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중국 등 국내외 시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전남도가 이 같은 내외의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 농정을 함께 선진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 전남도는 곧 선진수산물 조직도 가동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올 전남산 골드키위 더욱 맛있게 수확 마무리

- 제4회 해금골드키위 품평회와 산업발전 간담회 열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제4회 해금골드키위 품평회를 겸한 산업발전 간담회를 지난 6일 보성에서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 전남에서 직접 개발한 골드키위 ‘해금’ 품종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시작된 품평회는 매년 성공적인 수확이 완료되는 이맘때 개최되고 있다.
- 올해의 최고 품질생산자는 순천의 김억수씨와 보성의 이봉재씨가 공동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최우수상에는 광양의 이만식씨, 우수상에는 강진의 정성태, 고흥의 송후섭씨, 장흥의 서남진씨가 각각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올해 전남산 골드키위는 일조량이 좋고 수확기 강우가 적어 더욱 맛이 좋아졌다고 한다. 특히, 8-9월에 태풍이 없고 일조가 좋아 수확 시기는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음에도 과실의 당도와 과실내부의 황금색은 더욱 향상되었다 말했다.
- 또한, 지난 추석직후부터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수확되기 시작한 금년 골드키위는 10월말까지 거의 수확이 완료되었고, 수확된 과일들은 전남 농협과 다국적 거대 과일 유통회사인 돌(Dole)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게 된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일본의 인팜사를 통해 일본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현지판매도 이미 약정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 한편, 과수연구소 조운섭 연구사는 올해도 수확기에 불량 품질이 생산되지 않도록 각종 현장 컨설팅과 수확기 판정기술이전을 실시하였으며, 품평회와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충 방제 쉬워진다.

- 전남농기원, 소면적 재배작물 농가 어려움 해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하여 문제되는 병해충을 조사하여 농약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면적 재배작물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농약제조업체에서 농약 등록 추진이 미흡하여 농가에서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갯기름나물(식방풍)은 여수 금오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고흥 등 일부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으며, 한약재의 원료인 황금은 고흥과 화순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병해충 피해 실태조사 결과 갯기름나물(식방풍)은 녹병 등 병 4종, 진딧물 등 해충 9종, 황금은 점무늬병 등 병 2종, 총채벌레 등 해충 7종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따라서 내년에는 피해가 심한 갯기름나물 녹병, 흰가루병, 점무늬병, 황금 점무늬 등 4종에 대하여 약제등록시험을 농촌진흥청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약등록시험은 약효와 약해시험을 수행한 뒤

잔류시험과 독성시험을 거쳐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연구사는 소면적작물에 대한 병해충 종류와 피해조사를 추진하여 문제가 되는 병해충에 대한 약제등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약등록 부족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2015 새 기술 보급 원예·특작 종합평가회 개최

- 11.12. ~ 11.13.까지 도내 6개 시범사업장 비교평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저비용 유기농 실천 및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를 위해 2015년 원예·특작 주요 시범사업에 대해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 이번 종합평가회는 시군 원예·특작 농촌진흥공무원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유기농업, 생산비 절감 등 도정시책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와 전남도내 시범사업장에서 현장평가로 이루어졌다.
- 우수사례 발표는 곡성의 청정 묘삼시설 재배기술, 함평의 양파생력 기계화 단지조성으로 추진한 생산비 절감 추진사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인 강진의 여주 특화단지 및 브랜드화 육성 사례가 있었다.
- 특히, 함평 양파생력화 기계화단지 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어 2016년 국비 200백만원을 받았으며, 양파생산 전 작업을 기계화하여 관행재배에 비해 10a당 생산노력시간은 241시간에서 58시간으로 76%가 절감됐으며, 생산비도 2,145천원에서 1,055천원으로 51%가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 현장 평가회는 나주 국내육성 추황배 유통현장 벤치마킹, 기후변화 대응 패션프루트 실증농가, 스마트폰 이용 원예시설 생육환경 조절 시범 등 시범사업장 6개소를 방문하여 시군별 추진상황을 비교분석 평가하였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연구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실증재배하는 사업으로 농가현장에서 시범요인을 면밀히 비교 평가하여 완성도 높은 시범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차나무 동백가는나방 늦가을까지 지속 발생

- 내년도 발생량 감소를 위해 피해잎 제거작업 필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최근 차나무에 동백가는나방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내년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잎 제거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백가는나방은 차잎을 가해하여 차 품질을 떨어뜨리고 수량을 감소시킨다.
- 동백가는나방의 유충은 새로나온 차잎을 말고 그 속에서 잎을 갉아 먹고 배설물을 분비하여 차 품질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유충이 말린 잎 속에 있기 때문에 약제를 살포하여도 한번 발생한 차나무 포장에는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 동백가는나방은 지역이나 해에 따라 밀도와 발생양상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잎속에서 번데기로 월동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연 6회 발생하며, 피해가 심할 경우 20% 정도의 피해엽이 나타난다.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금년도 시기별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10월 상순에 성충 발생량이 트랩당 723마리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엽율은

10월 중순에 15%로 높았다. 따라서 금년도 찻잎 수확은 끝났지만 발생밀도가 높은 포장에서는 내년도 발생밀도 감소를 위해서 피해잎 제거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 앞으로 도농업기술원 관계자(김효정 연구사)는 성페로몬트랩을 이용한 동백가는나방의 방제적기 포착 및 친환경 방제 자재 선발 실험을 추진하여 차나무 유기재배를 위한 해충 방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맥주보리 생산비 절감기술 시연회 개최

- 맥주보리 생력파종 및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비 8%, 노동시간 9.3% 절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저비용 고소득 농업실현을 위한 맥주보리 생산비 절감기술 시연회를 지난 11월 13일 순천시 낙안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연회는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 농업환경 변화와 고비용, 소농위주의 구조적인 농업의 취약점을 생산비 절감으로 극복하고자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날 시연회에서는 농업인 40여명과 관계공무원 등 총 60명이 참석하여 국내 신품종 맥주보리 육성현황 및 품종별 특성에 대한 교육과 승용 파종기를 활용한 생산비 절감 시연회 및 농기계 전시회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맥주보리 생력파종과 도복억제 기술 실천을 통해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비 절감 패키지 기술 도입 모형을 설정하고, 순천 낙안단지 166ha에 실증을 통해 성공 모델로 육성 한다는 방침이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맥주보리 일관 줄뿌림 파종과 답압기를 활용한 도복 및 서리발 피해 방지 등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ha당 생산비를 425만원에서 391만원으로 8.0% 절감하고 노동 투입시간을 75시간에서 68시간으로 9.3%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생산비 절감 모델화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다”며, “2018년까지 전남에 많이 재배되고 생산액과 특화계수가 높은 20개 작목에 대해 농업경영체들이 실천 가능한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생산비 절감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당당하고 활기찬 꽃노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성과 발표회 개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사업 참여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13일(금) 농촌건강장수마을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했다.
- 해남 예락, 함평 아차동, 장성 녹진마을 등 3개 우수마을의 추진 사례 발표와 1년 동안 학습, 부업활동 성과물 등을 전시하고, 7개 마을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이 공연되었다.
- 특히, 한글교실을 통해 글을 읽게 되신 나주 덕산마을 어르신들의 시낭송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고, 구례 하사마을의 풍물난타, 진도 영산마을의 전통민요, 강진군 백사마을의 장수체조 등도 큰 호응을 받았다.
- 농촌지원과 홍미혜 주무관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건강관리, 학습 및 사회활동, 환경개선, 소득·경제활동 등 4영역을 생활에 적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심리적 독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를 조성해 가는 사업으로 2015년 10마을을 육성하였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더위에 강한 배추·무 새 품종 평가받아

- 12일 다양한 무와 배추 품종 품평회와 분양설명회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다양한 무와 배추의 품종 품평회와 분양 설명회를 1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연다.
- 이날 행사에서는 조직 배양 기술 등을 이용해 개발한 순도(품질이 순수한 정도) 높은 무 24품종과 배추 12품종을 소개한다.
- 무는 GSP1) 채소종자사업단 연구 결과, 육성한 뿌리색이 붉은색인 유색 품종을 소개한다.
- 붉은색 채소는 천연 색소로 자연스럽게 음식의 외관을 살리며, 건강에도 좋아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붉은색 무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활용돼 종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품종을 개발했다.
- 특히, 무 계통 '원교10048호'는 우리나라의 비가 많고 습한 늦여름에도 잘 자라서 뿌리 터짐이 생기지 않고 뿌리 속 색이 진한 분홍색이 특징이다. 또한, '원교10050호'는 일반 무보다 크기는 작지만 단단하고 맛이 좋다.
- 배추는 기후 온난화로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어, 남부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며 더위에 강하고 익는 시기가 빨라 텃밭 재배에도 유리한 품종을 개발했다.
- 올해 새 품종 후보인 배추 '원교20047호'는 몸통이 작고 더위에

강하며 잎이 아삭해 샐러드용으로 좋다.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 시기가 일반 배추보다 10일 정도 빨라 텃밭 재배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외에도 덩고 습한 기후에서 잘 발생하는 뿌리혹병에 저항성이 있으며 느슨하게 결구되는 ‘원교20046호’, 속잎이 노랗고 몸통이 작아 국내·외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원교20039호’ 등을 평가한다.
- 현재까지 무 4품종, 배추 3품종이 통상 또는 전용 실시 형태로 분양했다.
- 무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재료로 2개 종자회사에 분양해 중국 수출용 품종 육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배추는 1품종이 3개 회사에 분양돼 품종 육성에 활용되고 있으며, 2품종은 농가 계약 재배용으로 선발해 전남 지역에 333아르 규모로 시범 재배되고 있다.
- 이번 품종평가회와 분양설명회 후 품종 분양을 원할 경우, 분양 요청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품종보호출원과 분양 실시 관련 공고를 거친 뒤 유상으로 분양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박수형 박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무와 배추의 품종을 지속적으로 종묘회사에 분양해 기후가 바뀌어도 한국인의 식탁에 안정적으로 무, 배추가 오를 수 있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2015 농정업무 종합평가서 순천시 대상

- 전남도 평가, 숲 속의 전남친환경농업 내실화 등 우수 -
- 전라남도는 201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순천시가 대상, 강진군 고흥군이 최우수상, 보성군해남군장흥군담양군나주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 전라남도는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도 주요 시책사업의 시군별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 올해는 농업농촌활성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식품산업 육성, 가축 방역 및 친환경축산 추진,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시군 자체 시책 개발 등 6개 분야 33개 항목을 평가했다.
- 평가 결과 순천시는 산림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강진군, 고흥군은 2~3개 분야에서, 보성군, 해남군, 장흥군, 담양군, 나주시는 1~2개 분야에서 상위를 기록했다.
- 순천시의 경우 민간 주도 나무 심기로 산림청 녹색도시 전국 우수,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률 49%, 축산농장 HACCP 지정률 32%, 6차산업 취득인증 경영체 8개 육성 등의 실적을 거뒀다.
- 강진군은 친환경비료 살포 100% 달성, 산림병해충 발생량 감소 목표 달성 등 친환경, 산림산업, 농정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궜다.
- 고흥군은 GAP 인증면적 689ha로 시군 평균 249ha에 비해 매우

우수했고, 축산농장 HACCP 지정률 37% 달성 등 농식품유통, 축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숲 속의 전남, 친환경 유기농업, 6차산업 활성화, 귀농귀촌인 유치 등 도 농정 역점시책을 시군에서 그대로 구현해 목표 달성에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본격적 유기농 시대, 베이비 붐세대의 귀농귀촌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앞장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라남도는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에 201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을 시상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 면세유 가격정보를 오피넷을 통해 공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15.11.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15.11.16일부터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

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6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산업부는 '15년 11월 중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 홍보와 가격표시판 교체를 위해 한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농협주유소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 일정을 앞당겨 '15.11.20일까지 면세유 가격표시판 교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픈넷 공개 등으로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며,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 미래농업을 이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대외 개방에 대응하여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구비한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농고농대 중에서 창업 중심 직업 교육체계를 추진할 고교와 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창조농고선도고교 3개교와 영농 창업특성화 대학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담당할 젊은 창업농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박근혜 정부는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농산업 분야도 이번 농고농대 교육사업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그간 농식품부는 농고농대생들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계 고교에는 산업연계 교육사업을 농대에는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하지만, 상기 사업은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창업 동아리 지원,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으로 첨단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 후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농고와 농대 중 의지와 역량을 갖춘 학교를 선정하고, 이들 학교 졸업생이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 직업교육체계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원사업

- 창조농업선도고교지원사업은 전국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예축산 분야에서 실제로 영농에 정착할 창업농 후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생 선발은 전국 단위로 영농 의지와 영농 기반이 있는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개방형 학교장 공모제, 산학겸임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 이들 학교에서는 영농 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3학년 실습학년제*, 현장 체험프로그램, 방학기간을 활용한 해외 전문기관 연수 등을 실시한다.
- 창조농업선도고교 대상 학교는 공모를 통해 우선 3개소를 선정하고 '16년도에 예산(정부안) 총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16.1월에 공모를 진행하여 4월에 학교를 선정, '17.3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6년도에는 학교당 개교 지원금 20억원을, '17년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매년 해당 학교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업 분야에 적성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기술경영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은 기존 농과계 대학 중에서 영농창업특성화 대학을 선정하여, 현장 실습이 강화된 별도 창업 특별 과정을 운영하여 졸업생들의 영농 창업을 지원한다.

- 영농창업특성화사업은 원예축산 분야나 농식품가공, 6차산업 등의 자율 분야 중 각 대학에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선정된 학교에서는 영농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 학생은 기존 전공과목과 함께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영농 창업 특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특별과정은 학점이 인정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하되, 실습학기제, 현장체험프로그램, 방학을 활용한 해외 전문기관 연수 등이 포함된다.
- 대상 학교는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16년도에 예산(정부안) 총 10억원을 투자한다.
- '15.12월에 공모를 진행하여, '16.2월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16년도에는 학교당 운영비 2억원을, '17년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당 학교들에 대해 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농산업 분야에 청년 학사 창업농의 진출이 확대되고, 농식품 가공수출과 6차산업을 선도할 농업경영인의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이번 농고농대 교육사업 개편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서 산업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에는 농식품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문과 관리평가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농고농대 교육사업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생에 대한 현장실습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곧바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ICT 등 첨단 현장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첨단기술공동실습장’에서 이들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교육 기반도 함께 지원 한다.
- 또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2030 농지지원, 창업안정지원금, 산업기능요원 선정, 농업인 교육경영컨설팅 등 정부 정책지원 사업에서 이들 학교 졸업생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서 금번 농고와 농대 교육사업 개편이 농업후계 인력 확보와 젊은 창업농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의 새로운 인력 양성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

- 11.11일(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으로 1,45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추가로 편성한 예산 1,450억원은 ‘15년 예비비 423억원과 ’16년

가뭄대책 연계사업비 1,027억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 이번 추가 예산은 가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충남 서부권 등 내년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뭄이 심한 「공주보-예당지」와 「상주보-화달지」에 대한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 「공주보-예당지」간 도수로(31km) 공사(988억원)는 현재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현 저수율 24%, 평년 68%)으로 내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어 조기 추진키로 하였음
- 올해 예비비 15억원을 지원하여 조사·설계에 착수하고, '16년 소요 예산 400억원을 반영하여 도수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16.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 '17년에는 나머지 사업비 573억원을 지원하여 영농기전인 '17.6월까지는 예당지 전체 관개면적 7,887ha에 대하여 용수(218천m³/일)를 공급하여 항구적인 가뭄해소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공주보-예당지」도수로 공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백제보-보령댐 도수로사업 사례와 같이 예타면제* 및 관련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임
- 「상주보-화달지」도수로(12km) 공사(332억원)는 수리시설이 미흡하고 강수량 부족으로 현재 저수율이 평년대비 47%(현 저수율 37%, 평년 79%)로 내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어, 「공주보-예당지」와 함께 우선 추진키로 하였음
- 올해 예비비 5억원을 지원하여 조사·설계에 착수하고, '16년에는

나머지 소요예산 327억원 전액을 지원하여 도수로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16.6월까지는 전체 수혜면적(798ha)에 대한 안정적 용수(172천m³/일)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정부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으로 「공주보-예당지」 및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남서부권(7,887ha) 및 경북 북부 상주지역(798ha) 등 가뭄상습지 8,685ha에 대한 용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함
- 둘째,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 중 저수율 50%미만 178개소(4,239천m³)에 대한 준설을 위해 예비비 403억원을 지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임
- 금년 6월부터 수리시설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및 특별교부세(안전처)를 세차례에 걸쳐 443억원(국고 394, 지방비 49)을 지원하여 750개 저수지(4,495천m³)*에 대한 준설을 하고 있음
- 이번 저수지준설까지 포함하면 8,734천m³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토사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됨
- 셋째, 내년 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관정개발, 양수장 설치 등 긴급용수대책 추진을 위해 '16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를 정부안 1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3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임
- 한편, 국민안전처는 가뭄지역 시·군에 대해 관정개발, 저수지 양수, 노후 상수관로 보수 등 지자체 가뭄대책 지원을 위해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특별교부세 259억원을 연내에 별도 지원키로 하였음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대책으로 저수지준설을 통해 8,734천m³의 저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주보-예당지」 및 「상주보-화달지」 간 도수로 공사 등으로 약 1만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기 지원된 가뭄대책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하여 논과 수로에 물 가두기, 공동 못자리설치, 모내기 시기 조정 등 물 절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엘니뇨, 흑해 지역 가물 외 곡물 시장 피해 전망

- 엘니뇨가 곡물 및 오일시드의 가장 중요한 봄 작황 기간 이전에 생산량을 경감 시키는 영향을 미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물 이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수요일 애널리스트들은 전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곡물 컨퍼런스에서 Hightower Report사의 대표 연구원 David Hightower는 엘니뇨로 인해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오일 가격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 현재 내년 팜오일 수출이 10% 감소해 식용 가능한 오일 470만 톤이 대체되어 세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니뇨의 영향은 가늠할 수 없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의 소비량이 엘니뇨 이전의 상황보다 상당히 늘어 더욱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 이러한 빠듯한 오일시드의 공급은 다른 곡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르헨티나 농가는 현저하게 파종을 축소시키면서 옥수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일시드에 대한 엘니뇨 영향은 만약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추가적인 강우가 내린다면, 대두 생산이 상당해져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최대 옥수수 및 대두 생산국인 미국은 그동안 엘니뇨 현상과 더불어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어 북태평양 지역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고 MDA 기상서비스의 기상학자 Kyle Tapley는 전했다. 과거 이러한 날씨 패턴을 보였던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 생산량은 평균보다 약 10%가량 낮추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날씨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우량과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따뜻하나 덕분에 서리에 대한 피해를 줄일 것으로 전망되어 작황에 긍정적인 날씨로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을 가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에 파종된 2016년 밀 생산은 올해 2,400만 톤보다 낮은 1,800~2,0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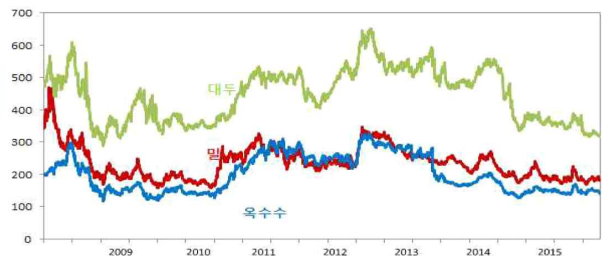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1. 16.(시카고 선물거래소)

프로핏테이킹 차질로 대두 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1.13)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0)	2014 평균
밀	182.10	▼0.5%	186	216
옥수수	141.02	▼1.0%	151	164
대두	315.65	▼1.2%	32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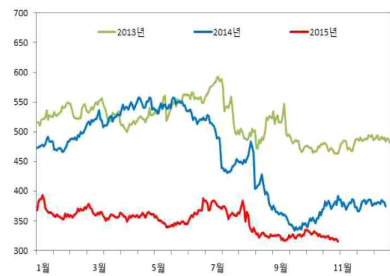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슛커버링으로 인한 상승세는 한계를 보이고 박스권 등락으로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 풍작 및 수출 수요 약세로 인한 압박으로 하락 마감함. 슛커버링 이후 매도세를 보인 거래가 하락의 반증임. 미국 중서부와 평원 지역 내수 강우가 예보되어 있어 겨울 밀 작황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에 수출 수요 약세가 겹치며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함. 현재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옥수수 생산을 감축 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수요가 기대되어 재고량 불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 관계자는 전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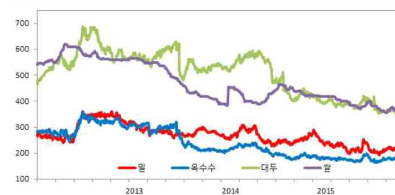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프로핏테이킹 차질로 하락 마감함. 기술적 매수세 및 계약이 감소한 것의 영향도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됨. 풍작으로 인한 공급량 과잉과 더불어 2016년 파종 또한 많아 가격하락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나 기대보다 나은 수출수요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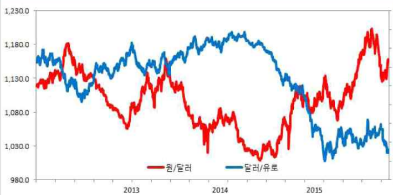
관련동향

- 주요곡물 수출가격은 특이 사항 없이 보합세 마감
- 국제유가는 IEA의 세계석유수요 증가 둔화 전망 및 OECD 석유재고 증가 추정,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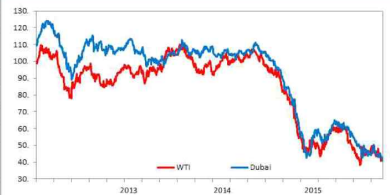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12 ▲0.5%	환율	원/달러	1154.5 -
	옥수수	170 -		달러/유로	1.0812 ▲0.5%
	대두	351 -	국제유가 (US\$/B)	WTI	40.74 ▼2.4%
	쌀	369 ▲0.8%		Dubai	40.77 ▼2.2%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1.12(수출가격), '15.11.13(환율), '15.11.1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제46회 4-H 중앙경진대회

- 일 시 : 2015. 11. 16.(월) ~ 2015. 11. 18.(수)
- 장 소 : 전주 농촌진흥청 일원
- 주 제 : “젊은 4-H 미래농업을 약속하다”
- 계획인원 : 800여명(청년4-H회원 및 학생4-H회원)
- 주요내용
 - 우리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연
 - 으뜸 농특산물 경진
 -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와 곤충 요리 경연 등 참여 활동과 미래 농기계 전시
 - 도시민과 함께하는 4-H 한마음 축제

◆ 대한민국 농업의 변화! 강소농 - 2015 강소농 대전

- 일 시 : 2015. 11. 18.(수) 13:30
- 장 소 : 서울 코엑스 전시관(A홀)
- 주요내용
 - 강소농 성과보고회
 - 시군 우수농산물 전시
 - 바이어 초청 농산물 유통의 날

주간

전남농업정보

60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